

‘문병란과 광주’ 일본에서 특강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24일 일본 주오대에서

돌아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대들의 꽃다운 혼
뜻다한 사람 뜻다한 꿈을 안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부활의 노래로
맑은 사랑의 노래로
정녕 그대를 다시 돌아오는구나(문병란 '부활의 노래' 중에서)

5·18 진상과 역사적 의의

문병란 시인의 활동 알려

9월엔 시집 한·일동시 출간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24일 일본 주오대(중앙대) 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병란 시인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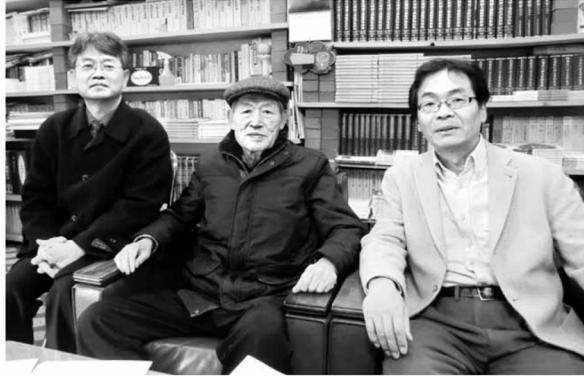
김 교수는 “출간 준비 중인 문병란 시집에 대한 일본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심포지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강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문병란의 자전적 시인 ‘나의 삶 나의 시’도 일본 대학생들에게 소개한다.

김 교수의 이번 주오대 방문은 2009년, 2010년, 2013년 연구 발표와 특강에 이은 네 번째로, 시집 번역과 평론 집필로 광주와 문병란 시인을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앞서 23일 일본 주오대 정책문화종합연구소에서는 공개 연구회도 열렸다. 행사는 문병란 시인 추모사업 한·일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구회에서 김 교수는 ‘문병란 문학과 한국사회’ 주제로 발표를 하고, 다카라베 도리코(財部鳥子) 시인(전 일본현대시인회 회장)이 ‘중국의 현대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이번 연구 보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전남대 5·18연구소, 2015)에 게재됐던 논문 ‘문병란 시와 작가정신’ 중에서 ‘문병란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지난해 김 교수는 히로오카 주오대 교수가 광주를 방문해 서은 문병란 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 기념사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념사업에 대해 협의할 당시, 통역 담당자 겸 문학 연구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방문에서 히로오카 교수와의 문병란 시집 한일 동시 출판 그리고 김준태 시인 초청강연 등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문병란 시인 제자인 허형만 목포대 명예교수와 황일봉 서은문학연구소 이사장 등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5월 히로오카 교수(오른쪽)가 광주 서은문학연구소 방문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문병란 시인과 김정훈 교수(왼쪽).



1992년 5·18광주민중항쟁 12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하는 문병란 시인.

현재 김 교수는 주오대 정책문화종합연구소에서 히로오카 교수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는 주오대 정책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아 3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방문에서 히로오카 교수와의 문병란 시집 한일 동시 출판 그리고 김준태 시인 초청강연 등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문병란 시인 제자인 허형만 목포대 명예교수와 황일봉 서은문학연구소 이사장 등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인협회, 장성 출신 박흥 시인 작품 조명 심포지엄 열어

장성 출신 박흥 시인(1912~1962)은 해방 이후 독특한 시 세계로 광주전남지역 문단을 이끌었던 문인이었다. 그는 광주학생운동의 전모를 알리는 등 항일운동가로 활동하는 등 남도문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숙명여전 강사시절에는 경향신문에 ‘젊은 강사(講師)’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그는 시적 소재로 잘 삼지 않는 소재를 대상으로 그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전개했다.

전남문인협회(회장 박형동)는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250여 명의 문인과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박흥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흥의 문학세계와 남도문단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60년대 초반까지 지역문단을 이끌어왔던 박흥 시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흥의 제자였던 문학평론가 이돈배 송원대 명예교수가 발

제를 맡았고 김용국·조선희 시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묻혀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박흥 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특히 박흥 시인이 광주학생운동의 전모를 알리기 위해 이리농림학교 학생들의 결기를 촉구하는 격문을 인쇄하다가 체포된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해방 이후 반공

시들을 발표해 민족혼을 일깨우려 했던 일화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박흥 시인을 배출한 고장 장성에서 그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면서 “시인의 나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잘 드러난 작품 ‘나무’, ‘나무씨를 뿌리며’ 등을 새긴 시비를 장성의 축령산에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형동 전남문인협회장은 박흥 시인의 항일운동과 시 정신을 기리고 위해 국가유공자 표창 상장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6억 5천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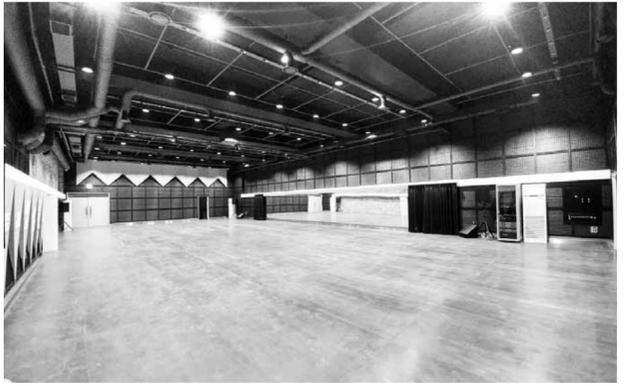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법인체 인수가능
- 시세 및 감정 - 7억
- 급매 - 4억 8천 5백만원 (대출 4억 2천 5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제 62회 호남예술제 실용음악 입상자

<p>〈심사위원〉 배창희(남부대 교수) 남유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p> <p>◇보컬 중등부 ▲금상 1 이미지(광주동명중3) ◇오카리나 초등부 ▲동상 1 정민지(무등초4) ◇일렉기타 고등부 ▲은상 1 오영민(풍암고2) ◇재즈기타 중등부 ▲은상 1 김찬우(조선대부속중2) ◇재즈기타 고등부 ▲은상 1 유주현(살레시오고2) ◇통기타 초등부</p>	<p>▲동상 1 정하원(광주신창초4) ◇통기타 중등부 1,2학년 ▲동상 1 정하은(광주진흥중1) ◇통기타 중등부 3학년 ▲금상 1 박학기(광주서석중3) ◇클래식기타 초등부 3,4학년 ▲금상 4 서규민(광주송원초3) ▲은상 5 김준형(광주송원초4) ▲동상 1 정재원(광주송원초4) ◇클래식기타 초등부 5,6학년 ▲은상 1 김지혜(광주송원초5) ◇클래식기타 중등부</p>	<p>▲금상 1 백옥토(충덕중3) ◇색소폰 중등부 ▲은상 1 김다니엘(전주예술중3) ◇색소폰 고등부 ▲금상 1 김지민(동명고1) ◇드럼 초등부 ▲은상 2 김담연(광주수원초3) ▲동상 1 오승후(은빛초3) ◇드럼 중등부 ▲동상 1 손흥기(전남중2)</p>
---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6월 문 연다

광주 광산구 대규모 연습장

소촌아트팩토리 부지에

광주 예술창작 거점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고민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연습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히 오케스트라, 무용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한 장르의 단체들은 애를 먹었다.

광주 광산구가 대규모 연습장 ‘아르코 공연연습센터@광주’가 문을 연다.

소촌아트팩토리 부지에 들어선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광주는 규모와 시설에서 광주·전남 최대를 자랑한다. 1031㎡ 공간에 대연습실, 중연습실, 다목적 공간으로 쓰는 리딩룸(reading room), 세미나실,

커뮤니티 카페 등이 들어섰다. 특히 332㎡ 크기의 대연습실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로 대형 작품을 연습하고 리허설할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 이번에 공연연습센터를 마련했다. 앞으로 센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운영사업단을 꾸려 운영하며 6월 개관식 후 시범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광산구는 전시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소촌아트팩토리에 아르코공연연습센터가 문을 열게됨에 따라 소촌아트팩토리를 광주의 대표적인 예술창작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문의 062-960-36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